

三焦와 營衛의 相關性

文聖植 · 姜政秀*

Abstract

The Relation of Three Burning Space And Nutrient & Defensive Qi

Mun Seong-sik O.M.D, Kang Jung-Soo O.M.D., Ph. D.

Dept. of Oriental Medicine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Taejon University, Taejon, Korea.

Three burning space concentrating mainly on the text of 《NeiChing》, we got this conclusion by looking at a longitudinal perspective of three burning space function, nutrient & defensive qi creation, movement and numbers.

1. Longitudinal movement is the law of the universe, by looking at oriental medicine by the thought of heaven and man unity we can tell that longitudinal movement concept is used to analyze the physiology of our body. And we can look at our body in a cubic movement such as top and bottom, left and right, outside and inside, internal and external, upward and downward movement.

2. In Nei Ching the concept of three burning space is separated into four different types of three burning space which are three burning space as a fu, three burning space as a water metabolism and excretion organ, and three burning space by its position.

3. nutrient & defensive qi's movement in the channel is the same as the twelve regular channels movement in our body. nutrient qi circulates the yang part twenty five during the day and circulates the ying part twenty five times during the night. Since channel functions corresponds with the sun, moon, and the stars the ups and downs of nutrient & defensive qi's property varies with the difference of the periods.

4. By comparing nutrient & defensive qi's production and property with three burning space's positional property, we can see that three burning space's positional property comes out from the longitudinal movement of nutrient & defensive qi.

I. 緒 論

三焦는 構造의인 概念이 명확하게 規定되지 않은 腑 중의 하나로, 《內經》에서는 人體 水分代謝를

주관하며 營衛氣의 生成을 담당하여 氣의 循環을 主司하고, 如霧, 如瀉, 如瀆의 형태로써 각각 上, 中, 下 三部에서 그 機能이 나타난다고 하였다.¹⁾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生理學教室

1) 金完熙 外 : 東醫生理學,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1993, p.350.

三焦에 대해 《靈樞·決氣篇》²⁾에서는 “上焦開發 宣五穀味 膈膚 充身 澤毛 若霧露之溉”라 하여 水穀을 收納하고 精氣를 全身으로 宣發, 布散함을 說明하였으며,³⁾ 《靈樞·營衛生會篇》⁴⁾에서 “泌糟粕 蒸津液 化其精微 上注於肺脈 乃化而爲血 以奉生身 莫貴於此”라 하여 水穀의 腐熟, 精微의 蒸化, 氣血津液의 化生을 說明하였다.⁵⁾ 또한 《難經·三十一·難》⁶⁾에서 “主分別清濁 主出而不納 以傳道也”라 하여 水穀糟粕을 轉化시키고 二便을 排泄시키는 것을 說明하고 있다.⁷⁾

이러한 三焦는 《靈樞·營衛生會篇》⁸⁾에서 말한 바와 같이 水穀의 運化에 의해 만들어진 營衛와 밀접한 相關性이 있으므로, 이에 著者는 《內經》을 중심으로 三焦의 機能에 의해 조절되는 營衛의 生成과 運行 및 度數에 대해 살펴보고 三焦와 營衛의 相關性을 升降論의 觀點에서 살펴보고자 이 論文을 作成하였다.

II. 本 論

1. 升降論의 理解

1) 上下升降

升降이란 上下升降이라고도 하는데 이 上下升降은 宇宙萬物의 運動形式이며 人體에서도 陰陽五行說과 더불어 生命活動을 營爲하는 基本原理로 認

識되고 있다.⁹⁾

自然界에서 물의 變化를 살펴보면, 地上의 물은 아래로 흘러 모이게 되고, 모인 물은 地上의 熱氣에 의하여 蒸發하여 水蒸氣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간 물은 결국 구름의 形態로 떠 있다가 비나 눈이 되어 다시 땅으로 내려온다. 이러한 평범한 理致에서, 내려온 것은 올라가게 되고 올라간 것은 내려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黃帝內經》시대에도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素問·六微之大論》¹⁰⁾에 “升已而降 降者爲天 降已而升 升者爲地 天氣下降 氣流於地 地氣上升 氣騰於天 故高下上召 升降相因而變作矣”라 하였고, 《素問·陰陽應象大論》¹¹⁾에서는 “清陽爲天 濁陰爲地 地氣上爲雲 天氣下爲雨 雨出地氣 雲出天氣”라 하여 陰陽精氣의 升降을 설명하였으며, 《素問·氣交變大論》¹²⁾에서는 “本氣位也 位天者天文也 位地者地理也 通于人氣地變化者 人事也”라 하여 人體를 天地 氣交中에 있게 하였다. 또한 天과 人이 하나의 理致임을 나타낸 것이다.

2) 左右升降

《素問·方盛衰論》¹³⁾에서는 “陽從左 陰從右”라 하였고, 王¹⁴⁾은 “陽氣는 左를 從하여 上升하는 것이 順이며 陰氣는 右를 從하여 下降하는 것이 順이다”라고 하였다. 《素問·刺禁論》¹⁵⁾에서는 “肝生于左 肺藏于右”라 하였으며 《素問·五運行大論》¹⁶⁾에서는 “上者右行하고 下者左行이니 左右周天하여 餘而復會라”하여 左升右降을 밝혔다.

3) 表裏內外升降

《素問·陰陽離合論》¹⁷⁾에서 “外는 陽이 되며 內는 陰이 된다.”고 하여 表와 外는 陽에 속하고

2) 河北醫學院：靈樞經校釋 上冊，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p.499.

3) 羅昌洙 外：韓醫學 基礎理論，서울，醫聖堂，2000，p.183.

4) 河北醫學院：上揭書，p.359.

5) 羅昌洙 外：上揭書，p.183.

6) 蔡陸仙：醫部全錄·卷一百五中，臟腑門，扁鵲難經，台北，中國通俗圖書刊行社，pp.297~298.

7) 羅昌洙 外：上揭書，p.184.

8) “上焦出於胃上口 竅咽以上貫膈 而布胸中 走腋循太陰之分而行 還至陽明 上至舌 下足陽明 常與營俱行於陽二十五度 行於陰 亦二十五度 一周也” “上焦如霧”

“中焦亦並胃中 出上焦之後 此所受氣者 泌糟粕 蒸津液 化其精微 上注於肺脈 乃化而爲血 以奉生身 莫貴於此 故獨得行於經隧 命曰營氣” “中焦如漚”

“下焦者 別腸瀉 注於膀胱而滲入焉 故水穀者 常並居於胃中 成糟粕而俱下於大腸 而成下焦 滲而俱下 濟泌別汁 循下焦而滲入膀胱焉” “下焦如瀆”.

9) 金完熙 外：臟腑辨證論治，서울，成輔社 1985，p.78.

10) 楊維傑 編著：內經素問譯解，서울，大星文化社，1990，pp.525~526.

11) 上揭書，p.43.

12) 上揭書，p.530.

13) 上揭書，p.695.

14) 王琦 外 編：素問今釋，貴州市，貴州人民出版社，1981，p.358.

15) 楊維傑：上揭書，p.380.

16) 楊維傑：上揭書，p.503.

17) 楊維傑：上揭書，p.65.

內와 裏는 陰에 속하는 概念임을 말했다.

升降과 出入에 대하여 《素問·六微之大論》¹⁸⁾에서 “無不出入 無不升降”이라 하여 出入과 升降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임을 밝혔고, 周¹⁹⁾는 《讀醫隨筆·升降出入論》에서 “人身의 肌肉筋骨은 각각 橫과 直으로 腠理가 있어서 氣의 出入升降하는 道路가 된다. 升降은 裏氣와 裏氣의 상호 회전의 道路이며, 出入은 裏氣와 外氣와의 相互交接의 道路이다. 裏氣는 身氣이며 外氣는 空氣이다. 鼻息一呼하면 全身 八萬四千 毛孔이 모두 벌어지며 一吸하면 全身 八萬四千 毛孔이 모두 모아진다.”고 하여 出入이 內部 身氣와 外部 空氣와의 相互交接을 의미하므로 그 통로는 腠理의 毛孔이 담당하고 있음을 說明하고 있다.

이상의 內容에서 升降과 出入은 人體 表裏內外에서의 원활한 生理機轉을 유지하도록 하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2. 《內經》에서의 三焦

1) 腑로서의 三焦

《素問·五臟別論》²⁰⁾에서 “脾, 胃, 小腸, 膀胱, 大腸, 三焦 名曰 傳化之府”라 하여 六腑 中の 하나임을 說明하였다.

2) 水液代謝 및 排泄器官으로서의 三焦

《靈樞·本輸篇》²¹⁾에서 “三焦者 中瀆之府也 水道出焉 屬膀胱 是孤之府也”라 하여 註釋²²⁾에서 “瀆은 水道이다. 三焦는 人體의 氣화와 水道를 通行하는 器官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素問·靈蘭秘典論》²³⁾에서 “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이라 하여 水液代謝를 주관하는 것으로 說明하였다.

3) 部位로서의 三焦

(1) 上焦

《靈樞·決氣篇》²⁴⁾에서 “上焦開發 宣五穀味 熏膚 充身 澤毛 若霧露之溉 是謂氣”라 하였고, 또한 《靈樞·營衛生會篇》에서 “上焦出於胃上口 竅咽以上貫膈 而布胸中 走腋 循太陰之分而行 還至陽明 上至舌 下足陽明 常與營俱行於陽二十五度 行於陰亦二十五度 一周也”²⁵⁾라 하여 呼吸을 담당하고 血脈을 主宰하며 飲食物의 營養物質을 全身으로 輸送散布하여 皮膚와 筋骨을 따뜻하게 길러주어 腠理를 순조롭게 조절하여 주는 것²⁶⁾이라고 說明하였다.

(2) 中焦

《靈樞·決氣篇》에서 “中焦受氣 取汁變化而赤爲血”²⁷⁾이라 하고, 《靈樞·營衛生會篇》에서 “中焦亦竅胃中 出上焦之後 此所受氣者 泌糟粕 蒸津液 化其精微 上注於肺脈 乃化而爲血 以奉生身 莫貴於此 故獨得行於經隧 命曰營氣”, “中焦如瀆”²⁸⁾라 하여 脾胃가 水穀精微를 運化하여 氣血生化의 根源²⁹⁾이 되는 生理機能을 說明한 것이다.

(3) 下焦

《素問·宣明五氣篇》에서 “下焦 溢爲水 膀胱不利爲瘻 不約爲遺尿”³⁰⁾라 하고 《靈樞·營衛生會篇》에서 “下焦者 別迴腸 注於膀胱而滲入焉 故水穀者 常竅居於胃中 成糟粕而俱下於大腸 而成下焦 滲而俱下 濟泌別汁 循下焦而滲入膀胱焉”, “下焦如瀆”³¹⁾이라 하여 小腸이 主液하고 大腸이 主津하며 腎과 膀胱이 水液을 調節하고 尿液을 排泄시키는 機能³²⁾을 說明한 것이다.

이와 같이 三焦는 음식물을 變化시키고 運搬하며 人體에 필요한 氣와 津液등을 얻어 활용하는 六腑의 하나이며, 생성된 氣血 및 津液이 全身에

18) 楊維傑 : 上揭書, p.528.

19) 周學海 : 讀醫隨筆, 江蘇省, 江蘇科技出版社, 1983, p.1.

“人身肌肉筋骨 各有橫直腠理 衛氣所出入升降之道 升降者 裏氣與裏氣相回旋之道也 出入者 裏氣與外氣相交接之道也 裏氣者 身氣也 外氣者 空氣也 鼻息一呼而周身八萬四千毛孔皆爲之一長 一吸而周身八萬四千毛孔皆爲之一翕.”

20) 楊維傑 : 上揭書, p.101.

21) 河北醫學院 : 上揭書, p.62.

22) 上揭書(靈樞經校釋 上冊) : p.63.

23) 楊維傑 : 上揭書, p.78.

24) 河北醫學院 : 上揭書, p.499.

25) 河北醫學院 : 上揭書, p.356~362.

26) 圓光大學校 附設 韓國傳統醫學研究所 基礎醫學研究部 : 韓醫學概說, 서울, 永林社, 1997, p.79.

27) 河北醫學院 : 上揭書, p.499.

28) 河北醫學院 : 上揭書, pp.359~362.

29) 蔡禹錫 : 韓醫學概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7, p.202.

30) 楊維傑 : 上揭書, p.207.

31) 河北醫學院 : 上揭書, p.362.

32) 蔡禹錫 : 上揭書, p.202.

循環되고 輸布되는 通路인 經脈과 血脈의 概念을 포함하고 있으며 水穀의 通路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얻어지는 氣와 水液의 通路³³⁾라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營衛의 生成 및 概念

1) 營衛의 生成

營衛의 生成에 대하여 《靈樞·營衛生會篇》에서 “人受氣於穀 穀入於胃 以傳於肺 五臟六腑 皆以受氣 其清者爲營 濁者爲衛 營在脈中 衛在脈外”³⁴⁾라 하고 《靈樞·邪客篇》에서는 “宗氣積於胸中 出於喉嚨 以貫心脈 而行呼吸焉”³⁵⁾이라 하여 사람의 生함은 氣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氣는 天에서 呼吸을 통해 出入받는 것과, 穀으로 氣가됨을 습하여 身에 充하는 것이므로 穀食이 胃에 入하여 化하므로 氣가 되는 것이 穀氣이며 이는 中焦로부터 出하여 脾에서 傳化하므로 上으로 肺에 歸하여 胸中 氣海의 사이에 積하니 宗氣가 되어 行함이 息으로서 往來하여 三焦를 通달하므로 五臟六腑가 모두 氣를 受하는 것³⁶⁾을 說明한 것이다.

이와 같이 營氣는 水穀에서 生하므로 그 根源이 脾胃에 있어 中焦에서 出함을 알 수 있고 衛氣도 水穀에서 生하므로 그 根源이 脾胃에 있으나 上焦로 出하여 施化함을 알 수 있고 穀氣가 胃에서 出하는데 있어서도 清濁의 구분이 있음을 說明하였다.

2) 營衛의 概念

水穀의 精微로부터 化生되어 풍부한 營養物質을 含有하고 血脈 중에 분포하며 全身을 循行하면서 “以榮四末, 內注五臟六腑”의 機能을 발휘하는 것이 營氣이다.³⁷⁾ 그리고 衛氣를 “水穀의 精微로부터 化生되어진 人體 陽氣의 一部分으로서 衛陽”³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靈樞·營衛生會篇》에서 “清者爲營 營在脈中”³⁹⁾이라 하고, 《靈樞·營氣篇》에서는 “그 性이

精專한 것은 항상 돌아서 그침이 없다”⁴⁰⁾고 하였다. 또한 經隧의 中을 周行한다고 한 것은 《靈樞·邪客篇》에서 “營氣者 泌其津液 注之於脈 化而爲血 以營四末 內注五臟六腑”라고 한 것과 의미가 相通한다.⁴¹⁾

《靈樞·邪客篇》에서 “衛氣는 悍氣의 標疾함을 出하여 먼저 四末, 分肉, 皮膚之間을 行하여 쉬지 않는다.”⁴²⁾라고 하였다. 이는 《靈樞·衛氣篇》에서 “其浮氣之 不循經者 爲衛氣 其精氣之行於經者 爲營氣”라 함과 相通하는 것이다.

4. 營氣의 運行

營氣의 運行에 대하여 《靈樞·營氣篇》⁴³⁾에서는 “營氣之道 內穀爲寶 穀入於胃 乃傳之肺 流溢於中 布散於外 精專者行於經隧 常營無已 終而部始 是謂天地之紀 故氣從太陰 出注手陽明 上行注足陽明 行至附上 注大指間 與太陰合 上行指髀 從脾注心中 循手少陰 出腋下臂 注小指 合手太陽 上行乘腋 出頰內 注目內眥 上巔下項 合足太陽 循脊下 下行注小指之端 循足心 注足少陰 上行注腎 從腎注心外 散於胸中 循心主脈 出腋下臂 出兩筋之間 入掌中 出中指之端 還注 小指次指之端 合手小陽 上行注臍中 散於三焦 從三焦注臍 出臍注足少陽 下行至附上 復從巔注大指間 合足厥陰 上行至肝 從肝上注肺 上循喉嚨入頰頰之竅 究於畜門 基支別者 上額循巔下項中 循脊入胝 是督脈也 絡陰器 上過毛中 入臍中 上循腹裏入缺盆 下注肺中 復從太陰 此營氣之所行也 逆順之常也”라 하였으니, 이는 營氣가 水穀이 精氣로부터 化生하여 流注의 路徑이 十二經脈의 順序와 一致하고 厥陰肝의 別支가 督脈과 交하고 다시 陰器를 돌아서 任脈에 交하여 다시 肺經으로 流注하는 것⁴⁴⁾을 說明한 것이다. 이에 대해 李⁴⁵⁾는 營氣의 運行이 十二經脈의 次序로 運行

33) 金完熙 外 : 上揭書, p.351.

34) 河北醫學院 : 上揭書, p.352.

35) 河北醫學院 : 上揭書, p.266.

36) 李正來 : 太韓醫學全集 1卷, 서울, 第一文化社, 1989, p.586.

37) 金完熙, 崔達永 :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85, p.53.

38) 上揭書, p.53.

39) 河北醫學院 : 上揭書, p.352.

40) 河北醫學院 : 上揭書, p.337.

“精專者 行於經隧 常營無已 終而復始.”

41) 河北醫學院 : 上揭書, p.266.

42) 河北醫學院 : 上揭書, p.266~267.

“衛氣者 出氣悍氣之標疾 而先行於四末 分肉, 皮膚之間 而不休者也”

43) 河北醫學院 : 上揭書, pp.337~338.

44) 河北醫學院 : 上揭書, p.341.

하며 厥陰의 別支가 督脈과 交하는 것을 陰盡陽生의 의미로 說明하고 있으며 督脈이 尾氈로부터 前으로 陰器를 絡하여 任脈과 相通하는 것을 陽極生陰의 의미로 說明하여 經路에 있어 上으로부터 下하고 下로부터 上하며 陰에서 出하여 陽으로 入하고 또한 陽에서 出하여 陰으로 入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서로 逆順으로 行하는 것이 그 天地自然의 理致를 法한 리듬과도 같은 정상적인 生理現象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營氣의 運行은 中焦에서 出하여 手太陰肺經으로 注하여 十四經의 道를 循하며 晝夜를 쉬지 않고 人體의 上下內外를 升降하는 것이다.

5. 營氣의 運行

營氣의 運行에 대하여 《靈樞·營氣行篇》에서는 “歲有十二月 日有十二辰 子午爲經 卯酉爲緯 天周二十八宿而一面七星 四七二十八星 房昴爲緯 虛張爲經 是故房至畢爲陽 昴至心爲陰 陽主晝 陰主夜 故營氣之行 一日一夜五十周於身 晝日行於陽二十五周 夜行於陰二十五周 周於五歲”라 하였으니 이는 自然의 理致가 宇宙運行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小宇宙인 人體 또한 그 機轉에 의하는 秩序整然한 律動的인 과정을 營爲하고 있으니, 미세한 生理現象이라 할지라도 모두 여기에 포함됨을 說明하는 것이다. 즉 營氣가 身에 行하는 것도 一日一夜에 五十回를 身에 周하니 天의 陽은 晝를 主하고 陰은 夜를 主하는 것과 같이 人의 陽은 腑를 主하고 陰은 臟을 主하는 것이므로 營氣가 晝에는 陽分 즉 表와 腑의 二十五周를 行하고 夜에는 陰分, 즉 裏와 臟의 二十五周를 行한다.⁴⁵⁾

또한 《靈樞·營氣行篇》에서 “平旦陰盡 陽氣出於目 目張則氣上行於頭 側項下足太陽 循背下至小指之端 基散者別於目銳眦 下手太陽 下至手小指之間 外側 基散者別於目銳眦 下足少陽 注小指次指之間 以上循手少陽之分側 下至小指之間 別者以上至耳前 合於頰脈 注足陽明 以下行至附上 入五指之間 基散者從耳下 下手陽明 入大指之間 入掌中 基至於足也 入足心 出內踝下行陰分 復合於目 故爲一周”

45) 李正來：上揭書，p.595.

46) 李正來：上揭書，p.597.

“陽盡於陰 陰受氣矣 基始入於陰 常從足少陰注於腎 腎注於心 心柱於肺 肺注於肝 肝注於脾 脾復注於腎 爲周”⁴⁷⁾라 하여 營氣가 晝夜에 行하는 路徑이 다름을 說明하였다. 李⁴⁸⁾는 “營衛가 經絡으로 周行하는 것은, 天에는 日月星宿이 精氣의 表象이듯이, 人體의 陰陽兩精의 神氣가 流行하는 것과 같아 日月星宿에 應하는 經脈의 機能에 의하여 營衛運行에 屬하는 血液循環과 代謝作用도 時期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營氣의 行함이 晝에는 陽分에 있는 것이나, 또한 足少陰腎經을 兼하여 一周가 된다 하고 《靈樞·邪客篇》⁴⁹⁾을 살펴보다라도 營氣라는 것은 晝日에는 陽에 行하고 夜에는 陰에 行하며 일찌기 足少陰의 分 사이를 從하여 五臟과 六腑에 行한다고 하였으니, 晝夜를 不問하고 足少陰 腎經을 通行하는 이유는 陽은 陰에서 生하고 陰은 陽에서 生하므로 營氣는 본래 陽에 속하였기 때문에 腎을 從하여 上行하는 것이므로 衛出下焦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營衛氣의 運行을 通하여 살펴본 바 營氣라는 것은 穀이 胃中에 入하여 中焦에서 氣로 汁을 取하여 精微함으로 化하여 上으로 肺에 注함을 말미암아 手太陰으로부터 始하여 經隧의 中을 周行하므로 營氣가 中焦에서 出한 것이고 營氣라는 것은 悍氣의 慄疾한 것이 出하여 먼저 四末, 分肉, 皮膚의 사이로 行하고 脈으로 入하지 않아 平旦에 陰이 盡하고 陽氣가 目에 出하여 頭項을 循하여 下降하므로 足太陽膀胱經에서 始하여 陽分에 行하다가 日西에 陽이 盡하면 足少陰腎經에서 부터 始하여 陰分에 行하니 그 氣가 膀胱으로부터 腎으로 더불어 下를 말미암아 出하기 때문에 營氣가 下焦에서 出한다 하여 衛出下焦라 한 것이다.

6. 營衛의 運行度數

《靈樞·營氣行篇》에서 “日行一舍 人氣行一周 與十分身之八 日行二舍 人氣行三周於身 與十分身

47) 河北醫學院：上揭書，p.360.

48) 李正來：上揭書，p.612.

49) 河北醫學院：上揭書，p.267.

“晝日行于陽 夜行于陰 常從足少陰之分間 行于五臟六腑.”

之六 日行三舍 人氣行於身五周 與十分身之四 日行四舍 人氣行於身七周 與十分身之二 日行五舍 人氣行於身九周 日行六舍 人氣行於身十周 與十分身之八 日行七舍 人氣行於身十二周在身 與十分身之六 日行十四舍 人氣二十五周於身有奇分 與十分身之二 夜行一舍 人氣行於陰藏 一周與十分藏之八 亦如陽行之二十五周而復合於日 陰陽一日一夜 合有奇分十分身之四 與十分藏之二⁵⁰⁾라 하여 人身에서의 衛氣運行과 天의 周行의 相關關係를 밝혔다.

《靈樞·五十營篇》에서 “天周二十八宿 宿三十六分 人氣行一周千八分 日行二十八宿 人經脈上下 左右前後二十八脈 周身十六丈二尺 以應二十八宿 漏水下百刻 以分晝夜 故人一呼吸再動 氣行三寸 一吸脈亦再動 氣行三寸 呼吸定息氣行六寸 十息氣行六尺 日行二分 二百七十息 氣行十六丈二尺 氣行交通於中 一壽於身 下水二刻 日行二十五分 五百四十息 氣行再周於身 下水四刻 日行四十分 二千七百息 氣行十周於身 下水二十刻 日行五宿二十分 一萬三千五百息 氣行五十營於身 水下百刻 日行二十八宿 漏水皆盡脈終矣 所謂交通者 并行一數也 故五十營備 得盡天地之壽矣 凡行八百一十丈也⁵¹⁾라 하였고 語譯⁵²⁾에서 “天의 二十八宿이 宿間의 距離 三十六分을 서로 周함이 모두 一千八분이 되고 營氣運行의 回數가 晝夜에 五十回의 度數가 되니 서로 符合되는 것이며 人體의 經脈이 上下, 左右, 前後 合하여 二十八脈이 되는 것은 二十八宿과 應한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靈樞·經別篇》에서 “十二經脈者 此五臟六腑之所以 應天道⁵³⁾라 하여 人體와 外部環境과의 연결 고리로 作用함을 말하고 있다.

7. 三焦와 營衛의 相關性

1) 上焦와 營衛의 相關性

上焦에 대해 《靈樞·營衛生會篇》⁵⁴⁾에서 “上焦出於胃上口 竝咽以上貫膈 而布胸中 走液 循太陰之分而行 還至陽明 上至舌 下足陽明 常與營俱行於陽

二十五度 行於陰 亦二十五度 一周也 故五十度 而復大會於手太陰矣”, “上焦如霧”라 하여 이는 上焦에서 안개의 형태로 묘사되는 衛氣⁵⁵⁾의 生成이 이루어짐을 의미하고 上焦의 氣인 衛氣는 항상 營氣로 더불어 陽二十五도와 陰二十五도를 行하는 것을 말함이며 營氣가 비록 中焦에서 出하지만 上焦에서 作用함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靈樞·決氣篇》에서는 “上焦開發 宜五穀味 熏膚 充身 澤毛 若霧露之溉 是謂氣⁵⁶⁾라 하여 皮膚 腠理에 그 機能이 發현됨을 說明하고 있다.

또한 《靈樞·邪客篇》에서 “衛氣者 出氣悍氣之標疾 而先行於四末分肉 皮膚之間而不休⁵⁷⁾라 하고 《靈樞·本藏篇》⁵⁸⁾에서 “衛氣者 所以溫分肉 充皮毛 肥腠理 司開闔”이라 하여 上焦의 機能을 說明하고 있다.

2) 中焦와 營衛의 相關性

中焦에 대해 《靈樞·營衛生會篇》⁵⁹⁾에서 “中焦亦竝胃中 出上焦之後 此所受氣者 泌糟粕蒸津液 化其精微 上注於肺脈 乃化而爲血 以奉生身者 莫貴於此 故獨得行於經隨 命曰營氣” “營衛者精氣也 血者神氣也 故血之與氣 異名同類焉 故奪血者無汗 奪汗者無血 故人生有陽死 而無兩生”, “中焦如瀉”라 하여 水穀을 오랫동안 간직하여 서서히 흐르게 함으로써 糟粕을 分離하고 津液을 蒸하여 정미로운 營氣와 血을 生成하여 經隧, 즉 脈內를 通하여 全身에 輸布함을 說明하고 있다⁶⁰⁾. 한편 《靈樞·決氣篇》에서는 “中焦受氣 取汁變化而赤 爲血⁶¹⁾이라 하여 中焦에서의 血의 生成을 說明하고 있다.

營氣에 대해 《靈樞·邪客篇》에서 “營氣者 泌其津液 注之於脈 化而爲血 以營四末 內注五臟六腑⁶²⁾라 하여 血液 循環의 임무를 營이 맡고 있는 것과 各部組織에 공급하는 것을 說明하고 있다.

3) 下焦와 營衛의 相關性

50) 河北醫學院：上揭書，pp.362~363.

51) 河北醫學院：上揭書，pp.333~334.

52) 河北醫學院：上揭書，p.336.

53) 河北醫學院：上揭書，p.281.

54) 河北醫學院：上揭書，pp.356~362.

55) 金完熙 外：上揭書，p.352.

56) 河北醫學院：上揭書，p.499.

57) 河北醫學院：上揭書，pp.266~267.

58) 河北醫學院：上揭書，p.49.

59) 河北醫學院：上揭書，pp.359~362.

60) 金完熙 外：上揭書，p.353.

61) 河北醫學院：上揭書，p.499.

62) 河北醫學院：上揭書，pp.266~267.

下焦에 대해 《靈樞·營衛生會篇》⁶³⁾에서 “下焦者 別迴腸 注於膀胱而滲入焉 故水穀者 常竝居於胃中 成糟粕而俱下於大腸 而成下焦 滲而俱下 濟泌別汁 循下焦而滲入膀胱焉”, “下焦如瀆”라 하여 氣와 津液의 再吸收와 大便과 小便의 分離 및 排泄, 그리고 再吸收된 氣와 津液으로 모든 腸을 滋養하는 것을 說明하고 있다.⁶⁴⁾

8. 三焦의 기능에 의해 조절되는 營衛의 升降

1) 營衛의 上下升降

“上焦如霧 中焦如瀾 下焦如瀆”을 升降論의 으로 살펴보면, 《素問·六微之大論》에서 “高下가 相召하고 升降이 相引하여 變化가 일어난다.”⁶⁵⁾라 하였으며 張은 注釋⁶⁶⁾에서 “天氣는 地氣의 上升이 없으면 能히 下降할 수 없고 地氣는 天氣의 下降이 없으면 能히 上升할 수 없다. ……上에 있는 것은 반드시 下降하고, 下에 있는 것은 반드시 上升하니 이는 天地循環의 道이다. 陽은 반드시 陰을 부르고 陰은 반드시 陽을 부르니 이는 陰陽配舍의 이치이다. 그러므로 高下相召한 즉 升降이 있고 升降이 있는 즉 強弱相因하여 變化가 일어난다.” 하여 相互 陰陽互根을 논술하였다. 또한 張⁶⁷⁾은 “衛氣는 陽에 屬하며 이에 下焦에서 出하는 것이나 下의 것은 반드시 上升하는 것이므로 그리하여 그 氣가 아래에서부터 上升하는 것이니 또한 地氣가 上升하여 雲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요. 營은 본래 陰에 屬하며 이에 中焦로부터 上焦에 出하는 것이나 上의 것은 반드시 下降하는 것이므로 그리하여 營氣가 上으로부터 下하는 것이니 또한 天氣가 下降하여 雨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營中에도 반드시 衛가 없지 않은 것이며 衛中에도 반드시 營이 없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但 內에 行함을 이르러 營이라 하고 外의 行하는 것을 이르러 衛라 하는 것이니 이것은 人身의 陰과 陽의 交感의 道인 것이므로 分하면 二이고 合하면 一일뿐인 것이다.” 하여 營衛의 升降을 논술하였다.

따라서 “上焦如霧 中焦如瀾 下焦如瀆”이라 함은 營衛 升降의 結果에서 나타나는 水液代謝의 變化狀을 自然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다.

2) 表裏內外升降

“上焦開發 宜五穀味 熏膚 充身 澤毛 若霧露之漑是謂氣”와 “下焦者 別迴腸 注於膀胱 而滲入焉 故水穀者 常竝居於胃中 成糟粕 而俱下於大腸 濟泌別汁 循下焦而 滲入膀胱焉”을 升降論의 으로 살펴보면,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清陽出上竅 濁陰出下竅 清陽發腠理 濁陰走五臟 清陽實四支 濁陰歸六腑”⁶⁸⁾라 하여 上下升降과 表裏內外的 升降을 제시하였다. 이 내용은 語譯⁶⁹⁾에서 “陽은 氣를 主하여 上升하므로 清陽이 上竅로 出하고 陰은 形을 主하여 下降하므로 濁陰은 下竅로 出한다. 陽은 外를 護衛함을 主하므로 清陽은 腠理에 發하고, 陰은 內를 守함을 主하므로 濁陰이 五臟에 主한다. 四肢는 諸陽의 근본이 되므로 清陽은 四肢를 充실히 하고 六腑는 水穀을 傳化하여 全身을 養하므로 濁陰은 六腑로 돌아간다.”로 설명하고 있듯이 金匱에서 말한 三焦의 元眞이 通會하는 곳인 腠理에 血氣가 注하는 바⁷⁰⁾는 營衛의 升降에 依함을 알 수 있다.

《素問·經脈別論》에서 “食物이 胃中으로 들어가면 그 精微物質이 肝으로 散布되어 全身의 筋肉을 滋養한다. 濃厚한 精微物質은 心으로 上注되어 血脈中으로 輸送되고 百脈의 精氣가 經脈으로 流入되어 肺로 들어간다. 肺에서 百脈이 朝會하고

63) 河北醫學院：上揭書，p.362.

64) 蔡禹錫：上揭書，p.202.

65) 洪元植：精校黃帝內經，서울，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1981，p.135.

“高下相召 升降相因 變化作矣.”

66) 張介賓：類經 下，서울，大星文化社，1982，p.553.
“天無地之升則不能降 地無天地之降則不能升… …上者必降 下者必升 此天運循環之道也 陽必召陰 陰必召陽 此陰陽配舍之理也 故高下相召 則有升降 有升降 則強弱相因 而變化作矣.”

67) 張介賓：類經 上，서울，大星文化社，1982，p.194.
“衛氣屬陽 乃出於下焦 下者必升 故其氣自下而上 亦猶地氣上爲雲也 營本屬陰 乃自中焦而出於上焦 ……此人身陰陽交感之道 分之則二 合之則一而已.”

68) 洪元植：上揭書，p.135.

69) 楊維傑：上揭書，pp.43~44.

70) 張仲景 編：仲景全書，서울，大星文化社，1992，p.350.

“腠者是三焦通會元眞之處爲血氣所注理者是皮膚臟腑之文理也.”

肺의 宣發作用으로 皮毛에 散布되어 皮毛와 經脈의 精氣가 合한 후 胸中으로 되돌아간다고 하였고, 水液이 胃로 들어가면 精氣가 流溢하여 脾로 上輸되고 脾氣가 水精을 散布하여 肺로 上注하며 肺의 肅降作用으로 水道를 通調하고 膀胱으로 下輸된다. 이것은 水精을 全身皮毛로 散布시키는 것이며 五臟의 經脈으로 流注시키는 것이다.”⁷¹⁾라 하여 水穀의 精微物質이 升降作用에 따라 表인 皮毛까지 放散되기도 하고 膀胱으로 下輸되기도 하는 모양을 보여준다.

따라서 臟腑에서의 氣血升降과 經脈에서의 營衛升降에 의해 三焦의 기능이 발휘됨을 알 수 있다.

III. 結 論

《內經》 원문을 中心으로 三焦機能, 營衛生成, 運行 및 度數, 升降論的 觀點에서 三焦와 營衛의 相關性을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升降은 宇宙萬物의 運動形式이며 天人合一思想을 바탕으로 한 韓醫學은 升降概念을 人體의 生理 機轉을 해석하는 方法論으로 認識되어 왔다. 또한 人體를 立體的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上下, 左右, 表裏, 內外升降이라 할 수 있다.

2. 內經에서는 三焦를 腑로서의 三焦, 水液代謝 및 排泄器官으로서의 三焦, 部位로서의 三焦概念으로 언급하였다.

3. 營氣의 運行經路는 十二經脈의 順序와 一致하고 衛氣의 運行은 晝에는 陽分二十五周, 夜에는 陰分二十五周를 각각 行한다. 또한 日月星宿에 應하는 經脈의 機能에 의하여 營衛作用의 盛衰는 時期에 따라 달라진다.

4. 營衛의 生成 및 作用과 三焦의 部位別 作用을 比較해 보았을 때 營衛升降機能에 의하여 三焦의 部位別 作用이 나온다.

參考文獻

1. 金完熙 外 : 東醫生理學.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1993.
2. 河北醫學院 : 靈樞經校釋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3. 羅昌洙 外 : 韓의학 기초이론, 서울, 醫聖堂, 2000.
4. 蔡陸仙 : 醫部全錄·卷一百五中, 臟腑門, 扁鵲難經, 台北中國通俗圖書刊行社.
5. 金完熙 外 :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85.
6. 楊維傑 編 : 內經素問譯解, 서울, 大星文化社, 1990.
7. 王琦 外 編 : 素問今釋, 貴州市, 貴州人民出版社, 1981.
8. 周學海 : 讀醫隨筆, 江蘇省, 江蘇科技出版社, 1983.
9. 圓光大學校 附設 韓國傳統醫學研究所 基礎醫學研究部 : 韓醫學概說, 서울, 永林社.
10. 蔡禹錫 : 韓醫學概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7.
11. 李正來 : 太韓醫學全集 1卷, 서울, 第一文化社, 1989.
12. 金完熙, 崔達永 :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85.
13. 洪元植 編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
14. 張介賓 : 類經 下, 서울, 大星文化社, 1982.
15. 張仲景 編 :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2.
16. 裴延燁·洪茂昌 : “三焦의 機能과 病症의 相關性에 對한 研究”, 大韓韓醫學會誌, VOL. 4, 1983.
17. 梁熙台·金甲成 : “臍中 및 石門穴을 利用한 心包·三焦의 鍼灸學의 臨床應用에 關한 研究”, 大韓鍼灸學會誌, VOL. 13, 1996.

71) 洪元植 : 上揭書, p.48.

“食氣入胃 散精于肝 滲氣于筋 食氣入胃 濁氣歸心 滲精于脈 脈氣流經 經氣歸于肺 肺朝百脈 輸精于皮毛 毛脈合精 行氣于府 飲入于胃 遊溢精氣 上輸于脾 脾氣散精 上歸于肺 通調水道 下輸膀胱 水精四布 五經并行.”